

# 기후변화 선제 대응 장성군 아열대 과일 중심지로 뜬다

재배면적 80% 이상 차지했던 품종 '부사' 갈반병·탄저병 등 병충해 기후변화 직격탄 착색 용이한 '컬러플' 사과 2ha 시범보급 레몬 재배 확대 11월 첫 출시 올 10t 수확 내년 100t 생산...내륙 최대 재배단지 부상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2026년 문 열어



장성 '컬러플' 사과.



김한중 장성군수가 아열대작물 레몬 첫 수확현장을 찾아 일손을 거두고 있다.

<장성군 제공>

명품 과일 산지로 유명한 장성군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소득 작목으로 재배한 레몬 출시에 이어, 최근에는 신품종 '컬러플' 사과 시범보급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가공식을 가진 삼계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열대작물 연구·보급 메카로 기대가 크다.

◇컬러플 사과 시범도입...장성사과 명성 잇기= '명품 사과'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지만 최근 들어 위기를 맞았다. 장성지역 사과 재배면적은 약 215ha(헥타르)로, 이 가운데 80% 이상 '부사'가 차지하고 있다. 장성사과를 대표하는 이 품종은 지난해부터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갈반병, 탄저병 등 병충해 발생이 늘어나 그 피해를 오롯이 과수농가가 떠안고 말았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따뜻한 때 따뜻하고 선선할 때 기온이 내려가야 좋은 과일이 자라겠지만, 포근한 날들이 가을까지 이어졌고 수정·착과 불량, 병해충 피해, 착색불량의 삼중고를 냈다. 올해 장성군의 부사 수확량은 무려 70% 가까이 감소했다.

장성군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품종 '컬러플' 사과 시범보급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컬러플' 사과는 붉은색을 지닌 사과 품종인 양광과 천추를 교배해 만들었다. '컬러플'은 컬러(color)와 애플(apple)의 합성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외관이다. 겉껍질이 매끄럽고 진한 붉은색을 지니 보기에도 좋다. 품종의 특성상 부사 등 다른 사과보다 착색이 용이하다 보니, 기후변화로 상품성이 떨어질 확률이 낮다.

색깔만큼이나 맛도 진하다. 크기는 약간 작지만 대신 짙은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장성군은 이달까지 2ha 규모로 '컬러플' 사과를 시범 보급해, 기후 적합성과 신품종 확대 가능성 등을 두루 검증할 계획이다.

◇"장성에서 레몬이 난다" 내륙 최대 재배단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 따른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백향과, 애플망고, 삼채 등 다양한 아열대작물을 재배해 온 장성군은 올해 11월 처음으로 레몬을 출시했다.

레몬은 음료부터 고급요리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는 아열대과일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인 등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항산화성분 리미노이드를 함

유하고 있다. 신맛이 강하지만 섭취 후 혈액을 알칼리화해 '몸에 좋은 알칼리 과일'로도 꼽힌다. 최근 들어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건강을 위해 레몬수를 마신다고 알려지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만 소량 재배하고 있어, 국내 소비량의 97% 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레몬을 주로 껍질째 먹는다는 거다. 레몬수나 청을 만들기 위해선 껍질과 과육을 함께 가공 조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수입레몬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부제와 왁스처리를 한다. 물로 씻어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보니 안심하고 먹기 어렵다. 국내산 레몬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성군은 내륙지역 최대 레몬 생산지다. 2022년 전라남도 신소득원예특화단지 공모와 이듬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맞춤형 미래전략소득작목 육성시범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삼서면 일원에 3.9ha 레몬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올해 수확량 10t 물량은 신세계백화점 납품 등에 전망 소비됐다. 내년에는 100t 이상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계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2026년 완공=과일의 고장' 장성군은 이제 아열대작물 재배에 있어 반세기 언급해야 할 지역이 됐다. 지난 9월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서 가공식을 가진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그 핵심이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와 실증,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이다.

대지면적 22만 7783㎡, 바닥면적 4358㎡ 규모로 사업비 370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부지 내 종합연구동, 관리사, 경비실 등이 들어서며 2026년 완공 계획이다.

다른 아열대작물 연구시설들이 해안지역에 조성된 데 반해 장성군은 전방 최북단 내륙에 자리하고 있어, 온난화에 따른 전국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호남고속도로, KTX 등이 경유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연구결과와 공유가 쉬워 아열대작물 재배연구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준비된 이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된다"며 "기후변화에 장성 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열대작물 재배, 기존 농산물 재배 대응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예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2월호

2024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10주년

## 광주 미디어아트 빛나고 있나요?

GWANGJU City of Media Art

UNESCO Member of the Creative Cities Network

---

옛과 함께  
함평 여행

황금박쥐  
항일정신  
빛과나비

기획-예술과 함께 송년  
한국화단 두 거장,  
수십 년 만의 귀향 특별전

'오지호의 빛과  
천경자의 환상'을 만나다

### 예향 초대석

'역사를 역사답게'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황현필**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됩니다"

---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그곳에 가고 싶다  
전남 예술여행

---

해외문화기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우스 뮤지엄'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

---

문화 화제-드라마 '정년이' 신드롬  
'정년이'가 불러낸 여성국극  
'정년이'와 함께 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

승년 기획  
2024 문화계 결산

박찬 감독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감성 충만, 돌의 연금술사 전국광